

“대학 간 학사교류 서둘러 도입해야”

김동원 전북대총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교육 뉴노멀 제시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대학 간 문호를 활짝 열고 시스템을 공유하는 ‘학사 교류’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의 뉴노멀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의 2차 대유행으로 2학기 대면 수업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교육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집을 떠나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사 교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9월이나 10월 중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과의 협의회를 갖고 학사교류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정책 시행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학사 교류는 10~20명 수준의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과감히 벗어나 대학 간 문호를 활짝 열고 학사 시스템

자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학사 교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수업을 듣는 게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부산에 집을 둔 전북대생은 이틀에 한 번 부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전북지역 출신 부산대 학생은 전북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대의 경우 전체 재학생 1만8000여명 중 타지역에서 온 학생이 50%를 웃돈다.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외지출신 학생들은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등이 시행되면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3월 신학기를 맞아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대구·경북 출신의 학생들을 어떻게 할지 논란이 컸다. 등교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이 비용을 부담해 검사를 받도록 해줬지만, 일부에서 지역 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비대면 수업은 수업 내용 보다는



진도에 치중하게 되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이공계 실험실습이나 예체능 실기 등은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학사교류 제도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은 먼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해소되며, 원격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도 예방할 수 있어 세미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거점국립대에서 방학 등을 활용해 학점교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학별 교류학생의 자격이 다른데다 통일되지 않은 인정 기준, 추천인원의 제한 등 걸림돌이 있었고, 특히 성적평가 방식마저 다양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러 김 총장은 “학사교류가 활성화되면 대학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해 교육의 질도 한결 높아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입시정보 게임하며 얻어주세요”

전주대, 모바일 게임 ‘슬기로운 대학생’ 개발

전주대학교 입학처(처장 주정아)와 게임콘텐츠학과 고기환 교수는 7일 모바일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대학생’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대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들이 대학생활 체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제작된 가상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과와 입시정보를 얻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슬기로운 대학생’은 고기환 교수와 재학생들로 구성된 자체 개발팀에서 3D 모델링부터 디자인, 기획까지 진행하며 약 3개월 동안에 걸쳐 개발했다.

고기환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개발에 참여해 준 게임콘텐츠학과 재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정아 처장은 “공부와 씬름하며 더위에 지쳐있는 수험생들이 게임



‘슬기로운 대학생’은 마인크래프트로 제작된 가상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과와 입시정보를 얻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에 참여하며 본교에 대한 입학 정보를 알게 됨은 물론, 이벤트를 통해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시정보를 얻기 힘든 수험생들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대학교 입학처는 온라인 상담 및 모의면접, 화상 채팅 등을 활용한 입학 상담을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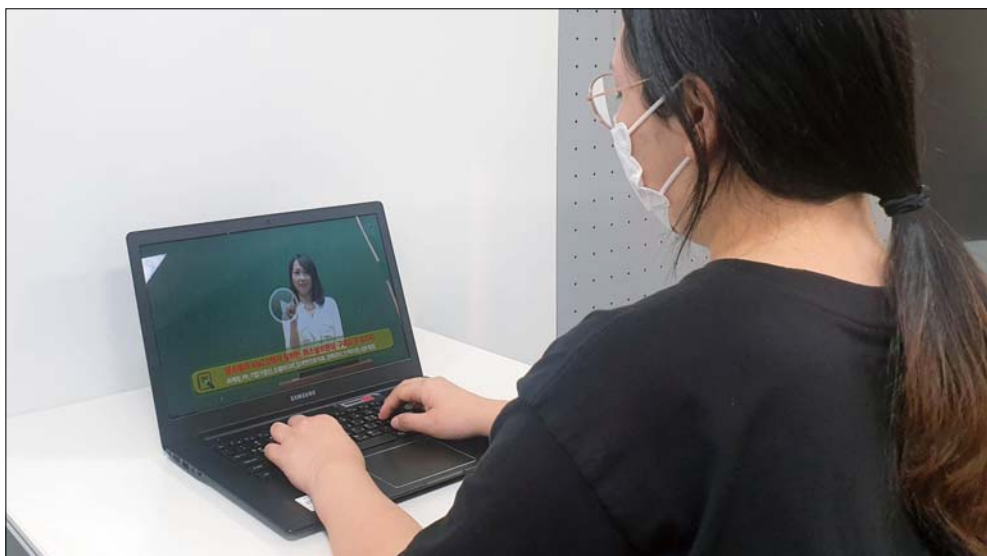
어울림·원도심 학교 현장방문

전북교육청이 어울림·원도심 학교 균형발전 종합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어울림학교 121개교, 원도심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균형발전 정책의 진단과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치·협력·소통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이다.

평가 영역은 학습공동체와 특색활동(참여와 소통의 교육과정 구성, 지역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육) 등이다. 평가는 초·중·고의 경우 교육지원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되며, 중·고는 도교육청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학교에서 제출한 진단서와 현장 방문을 통한 면담 평가를 종합 진단해 학교별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별 평가위원회는 3~5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학교별 종합평가 진단서를 바탕으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원도심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종합평가 결과는 학교별 성장할 및 발전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며 공유·확신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최근 ‘SNS마케팅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SNS마케팅 전문가 양성교육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최근 SNS마케팅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분야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7주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경쟁력을 높이는 SNS 활용법, ▲회사와 담당자 모두가 만족하는 SNS브랜딩 구축법, ▲SNS브랜딩의 핵심 소셜콘텐츠의 방향과 이해, ▲SNS를 활용한 브랜딩 구축 성공 사례 등이다.

특히, 100명의 교육생 모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SNS마케팅전문

가 1급과 마케팅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온라인 마케팅 분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홍성덕 센터장은 “접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SNS 마케팅 교육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온라인 및 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직무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밀집도 완화 방안 고민”

김승환 교육감, 학생수 분산 ‘어울림학교’ 중요성 강조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밀집도·밀폐도 완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밀집도와 밀폐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밀집도를 완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어울림학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중 공동통학구형은 도시지역의 대규모 학교와 인근 소규모 학교를 같은 통학구로 묶어 학생 수 분산과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규모가 큰 학교 인근에 작은 학교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국민들의 생존 방식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나면서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에 집중적으로 잘 살펴봐서 밀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항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하면서 전북교육감이 노조조합장 3명에 대해 내린 직권면직 처분도 규범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신분회복은 물론 해직기간 급여나 공무원연금 처리 문제 등 후속 절차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